

빌딩스마트협회와 MOU 체결

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수), 건설회관 11층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사)빌딩스마트협회(회장 이상림)와 연구 및 교육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빌딩스마트협회는 확산일로에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실무자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의 '개방형 BIM에 대한 실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BIM 관련 연구 및 기타 교류협력 분야 발굴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IT산업의 발달로 건설분야 설계 및 시공관리 업무가 도면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른 미래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4월 28일(수),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를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건설산업 선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세미나로서 제1주제로 본 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제2주제로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국민대학교 이성우 총장의 사회

로 서울대학교 고현무 교수, 국토해양부 도태호 건설정책관, 도화종합기술공사 문병권 부회장, 기획재정부 박성동 회계제도과장, 삼성건설 이규재 부사장, 매일경제신문 황봉현 부동산부장 등이 지명 토론을 가졌다.

김흥수 원장, 호주 시드니 한인상우회 초청 강연

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들 간 대전 및 서울에서 ‘감리 등 공사관리 방식 검토 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연구 결과의 일부인 ‘감리 등 공사관리 방식 검토 기준’ 내용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 업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ERIK